

##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 작품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의 양상과 의미

강성숙\*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이광정과 여성 인물 형상화 태도
3. 여성의 목소리 구현 양상
4. 여성 형상화의 시각과 여성의 목소리

### <국문초록>

이광정이 작품 속에서 구현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절의를 이룬 인물들이었다. 그는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그려냈으므로 그의 글에서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이 평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작품 속에 구현된 대상의 모습 속에서 글의 의도와는 다른 여성의 목소리와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열녀는 그 절의적 행동 때문에 공식적으로 칭송되지만 열녀가 되는 여성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내면적 갈등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절의적 여성을 그려내는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발화와 호느낌, 침묵에 주목하고, 이것이 (1) 효과 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목소리, (2)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대신 내는 가부장의 목소리 (3)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목소리 등으로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광정은 다양한 여성 인물을 통해 드러나지 않던 여성의 목소리를 읽어내게 해주었다. 이는 비록 그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일 수 있지만, 그의 작가적 감수성과 표현력이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눌은 이광정, 여성, 형상화, 열녀(烈女), 목소리

\* 한국문화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들의 삶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인간은 말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으려 하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마주하고 이해해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적인 언술로 만들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근대 이후 여성의 자기 체험서술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여성의 경험은 드러나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았다. 따라서 여성을 기술한 글에서는 드러나는 것보다 숨겨진 것, ‘존재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침묵되어온 경험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여성에 관한 서사는 대부분 제문이나 묘지명 등 죽음 이후의 공식적 글이며, 이는 또한 여성 주변 사대부 남성의 손을 거쳐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글쓰기에서 구현되는 여성의 모습은, 여성 자신의 솔직하고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여성의 삶이나 의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술 경험담에 비해 그 양상이 훨씬 제한적이다. 따라서 여성을 형상화한 글에서 남성 사대부가 여성의 모습을 얼마나 진실하게 재현해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재현의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한다면 그 속에서도 사대부들의 여성 인식과 여성의 자기 인식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대부 남성의 여성 기술은 한 사람의 ‘일생(一生)’을 다루고 있음에도, 경험을 통한 삶의 자세나 가치관, 행동양식 등의 변화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제문(祭文)이나 행장(行狀), 묘지명(墓誌銘), 열녀전(烈女傳) 등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은 애초에 이미 온순한 여성으로 부덕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며, 어려서부터 여성 교훈서를 읽고 실천

하거나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고, 시집간 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부덕을 마음껏 펼친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주변사람들은 그 덕행을 칭송해 마지않게 된다. 따라서 찬탄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여성 인물에 대한 이러한 기록에서 대상 여성 인물의 생생한 모습, 변화하는 의식, 태도 등을 살피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sup>1)</sup> 남성에 의한 여성 생애 기술은 그 공식적 글쓰기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의 복잡성<sup>2)</sup>에 대한 고려와 함께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이광정의 여성 인물 형상화 태도

늘은(訥隱) 이광정(李光庭)[1674~1756]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 중세 봉건 사회가 해체되어가던 시기에 퇴계의 학풍이 지배적이던 영남 안동에 살았던 남인 학자이다. 그는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과 양부모님의 연이은 상사(喪事)를 치르느라 과거를 포기하고 태백산(太白山) 아래에서 은거하며 평생 수행과 독서, 교육에 뜻을 두었다.

이광정은 ‘현달하지 못한 지방 사족’이라는 그가 처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남다른 문학적 관심으로 이룬 성과 등을 통해, ‘비교적 성리학적 체계에 경직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인물’이라고 평가된다.<sup>3)</sup> 사대

- 1) 이것은 대상 여성들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행장, 묘지명, 제문, 전의 양식들은 모두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칭송을 기본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들은 모두 기리는 대상으로 교훈적 전범이 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 2) 대상은 기억하는 다른 사람의 전언이나 행장, 유사, 때로는 통문(通文) 등의 기록을 통해 환기되므로 실제 작자의 입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부 유학자이면서 현달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위치와 문학적 형상화에 관심이 많았던 개인적 성향이 만나면서, 이광정은 규범적·교훈적 주제를 구현하면서도 개인의 예사롭지 않은 삶을 다루게 되었고, 이를 형상화해 내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그렇지만 여성인물을 대상으로 한 그의 글에 대한 평가는 '사대부로서의 의식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으로,<sup>5)</sup> 중세적 규범을 공고히 하는 임무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sup>6)</sup> 실제로, 널리 알려진 향랑 고사를 입전한 이광정의 <임열부향랑전(林烈婦蕓娘傳)>을 살펴보면 도덕적·교훈적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향랑의 행동이 열행(烈行)의 실천인가에 하는 문제가 당대인들에게서도 논란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사들은 향랑의 이야기를 절의의 실천으로 보고 그 행적을 기렸다.<sup>7)</sup> 애초에 당시 선산부사 조귀상은 향랑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조부 조찬한이 선산부사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의우(義牛) 사건과 세종 때의 열녀 '약가(藥哥)'의 일을 묶어 『의열

3) 김영,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의 망양록(亡羊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84, 124-125면.

4) 이광정(1674~1756)에 관한 개별 연구는 김혈조, 「한시를 통해 본 이조여성의 형상 -눌은(訥隱) 이광정의 서사적 한시를 통하여-」, 『민족문화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신태관,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의 망양록(亡羊錄) 연구」,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1987; 김영, 위의 논문; 김영, 「눌은 이광정 문학 연구: 그의 산문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참조.

5) 조혜란, 「<三韓拾遺>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69면.

6) 이혜순, 「열녀전의 入傳意識과 그 사상적 의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25면. 참조.

7) 향랑이 열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당대 사대부와 국가의 사회질서 유지책과 관련됨은 정출현(「<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커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집, 2001.) 참조.

도(義烈圖)』를 제작한다. 이 책의 발문을 쓴 권상하는 이들 사건을 길재의 유풍과 연결시키며 선산 지방을 절의의 고향으로 만들고 있다. 이광정 역시 조귀상의 <열녀향랑도기(烈女香娘圖記)>를 보고 감동하여, 향랑을 길재의 감화를 받은 선산의 절의녀로 형상화하는 데 동참한다. 이광정은 <임열부향랑전(林烈婦香娘傳)>에서 전(傳)의 서술문법까지 파괴하면서까지 (1)향랑과 길재, (2)향랑과 길재 이웃의 여자, (3)향랑과 의우 이야기를 연관시키고 있다.<sup>8)</sup>

(1) 향랑과 여자아이가 서로 함께 지주비(砥柱碑)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 위에는 길재 선생과 묘가 있었다. 길선생은 고려시대 사람으로 ... (중략) 후인들이 강 위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위에 돌을 세우고 '지주중류(砥柱中流)' 네 글자를 세웠는데, 그 뜻은 선생의 절개가 용문의 지주와 똑같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략) 향랑은 일선군 위 형곡리 사람인데, 혹은 봉계 사람으로 길재 선생과 같은 마을사람이라고도 한다. (후략)

(2) 이전에 길재 선생이 봉계에 물러나 사실 때에 글을 읽으실 때마다 “충신은 두 입을 삼키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버를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뜻을 밝히니, 이웃에 사는 여자가 문득 문 아래에 이르러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었다. (중략) 선생께서 그를 위해 그 글을 풀어주시니, 여자는 기쁘게 그 뜻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 후 여자의 남편이 국경에 수자리 살러 갔고 여자는 문을 잠그고 홀로 살았다. 남편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침 밤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남편이 문을 열라고 호령했으나 ... (중략) 끝내 문을 열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이 여인이 길 선생의 풍도를 들은 것으로 여겼다.

(3) 일선군의 동쪽에 문수점이 있다. 농부 김기년이 암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하루는 밭에 갔는데 호랑이가 그 소를 움켜쥐니 기년이 손에 든 쟁기로 그것을 쳤다. 호랑이는 소를 버리고 사람을 쫓았다. 기년은 호랑이

8) 정출현, 위의 글, 158면.

와 맞서 싸울 것이 없어 오직 두 손으로 그 입술을 막았다. 이에 소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 호랑이를 빨로 받으니, 호랑이는 버틸 수 없어 기년을 버려두고 숲 속으로 도망갔으나, 끝내 소가 그 호랑이를 부딪쳐 죽였다. 소는 다친 데가 없었고 오히려 일하고 마시고 먹으며 태연자약했다. (중략) 그 후 73년이 지나 조귀상이 이어 태수가 되니 임열부 사건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를 기이히 여겼다.

(4) 야사(野史)는 말한다. 내 일찍이 남쪽으로 가다가 이른바 금오산을 보니 푸르고 가파른 절벽이 서 있었다. 기이하도다. 오산을 지나다 길선생의 사당에 인사드렸는데, 대숲 속 바람이 숙연하여 그의 절의가 세상에서 드문 일이라는 느낌을 들게 했다. (중략) 오산과 낙동강 사이에는 예로부터 절의를 지킨 남자가 많았다. 사람들은 여자의 본성은 너그럽지 못하고 짐승은 어리석다고 말하나 그렇지 않다. 내 생각으로는 천지의 바른 기운이 이 땅에 모여 영특함을 심고 빼어남을 키울 때 사람과 만물, 남자와 여자, 귀한 자와 천한 자의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 여러 선생의 후세에 끼친 풍도와 남기신 열렬함이 진동하여 옛날과 지금에 서로 감응하여 떨쳐 그러할 수 있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면 임열부가 지주비 아래에서 죽은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조태수가 그림을 그리고 이 일을 세상에 전했으므로 세상에서 비로소 그 가르침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써서 이처럼 들은 것을 붙이니 뒷날 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일어난 비를 알 것이다.<sup>9)</sup>

9) (1)相與至砥柱碑下，其上有吉先生祠與墓。先生高麗人，…(중략) 其後人立石江上斷岸，刻之砥柱中流四字，其意以先生之節，可與龍門之砥柱並高云。(중략) 婦一善之上荊谷里人也。或曰鳳溪人，與吉先生同里云。(후략) (2)始吉先生退居鳳溪，每讀書至忠臣不事二君列女不二夫，三復致意，鄰有女子輒至門下，傾耳聽之。(중략) 女子欣然若會其意。其後女子有夫戍邊，女子閉門獨居。及夫還，會夜門閉，夫呼令開門，…(중략) 遂不開門，人以是女爲聞先生風者。(3)善之東，有文殊店。農人金起年畜一牝牛，一日往于田，虎攫其牛，起年手耒耜以搏之，虎舍牛而從人，起年無以應虎，惟兩手抗其吻，於是牛大呼奮前角之，虎不能支，舍而走林中，牛竟觸斃其虎，牛無所傷，猶服役飲吃自若。(중략) 其後七十有三年，龜祥繼爲，守有林烈婦事，人奇之。(4)野史曰：“余嘗南遊，觀所謂金烏山，蒼峭壁立，異哉！過詣

<임열부향량전>에서 향량은 독자적으로 입전되는 인물이 아니라 길재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화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길재의 감화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열행을 이루게 된 인물로 그려진다. 그가 조귀상의 글에는 없던, '향량이 길재 선생과 같은 마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은 의도 역시 이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향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는 절박한 상황에도, 작자의 시선은 <의열도>가 지주비의 형상을 향량의 모습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그려낸 것처럼 여전히 '지주비(砥柱碑)'에 가 있다. 실제로 지주비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향량 이야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지만 서사의 통일성을 파괴하면서까지 길재와 지주비에 관한 서술을 넣은 데는 이광정이 이 이야기를 절의의 구현이라는 가치로 보는 시각이 작용한 것이다.

길재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절의를 배워, 수자리 갔던 남편이 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2)의 여인 이야기는 작자의 의도로 인하여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바뀌었다.<sup>10)</sup>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의열도>에 포함되어 있는 열녀 '약가'이다. 약가의 이야기는 조귀상에 의해 <약가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세종실록에서 보이는 약가의 절행과는 그 의미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왜적에게 포로가 된 남편을 생각하며 주변의 개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8년을 기다렸던 여인 약가의 절행은 <약가도>에

吳山, 謁吉子祠, 竹林中風蕭然, 有曠世之感. (중략) 烏山洛江之間, 自古多節義男子, 人言女性蓄獨性蠢, 未爾, 吾意天地之正氣萃于茲土, 鍾英毓秀, 無間於人物男女貴賤與? 抑其諸先生之遺風餘烈, 振動今古相感奮, 有以也. 不然, 林烈婦之死於砥柱碑下, 何其奇也? 趙守記畫而傳之世, 其知教哉! 吾故列其事, 附以所聞見如是. 後之覽者, 知所興起焉. -<林烈婦薈娘傳>, 『訥隱集』권20, 『한국문집총간』 187, 519-521면.

10) 약가 이야기의 변전에 관해서는 정출현, 위의 글, 144-151면 참조.

서 길재 선생의 교화로 인해 남편에게도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절행을 지킨’ 인물로 형상화되고, 이광정에 오면 애초부터 이 여인은 이름도 없이 길재 선생의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절의를 실현한 인물로 바뀌어 교화의 의미가 더욱 강화된다.

(3)에 보이는 김기년의 암소 역시 주인을 위해 싸운 의로움이 부각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교화의 의미가 두 여인만큼 드러나지는 않는다. 의우는 선현의 덕화가 미물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기는 하지만 소에 얽힌 사건 자체가 사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두 여인의 이야기를 진술하는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두 여인과 의우의 이야기는 사실 길재 절의의 현실태로서 제시되는 예들이다. 그의 절의는 여인의 절행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자연의 감화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4)에서 이광정은 길재의 사당이 위치한 대숲의 바람마저도 초월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뭇 달라 보이는 위의 세 가지 이야기는 길재와의 연관성 속에서 의미를 지니며 신성함마저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열부향량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광정은 여성 인물의 절의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교화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거나 절의의 고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로 감화된 이들 여성 인물들은, 스스로의 주체적 결단이나 사실의 정확한 근거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교화를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열부향량전>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생각을 직접적으로 읽어내기란 어려운 작업이다.

이광정은 향량을 ‘열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린 시절 역시 ‘단아하고 깔끔하여 사내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幼而端潔, 不喜與男兒遊)’는 점, ‘어리석고 고집 센 새어머니가

향량을 몹시 미워하여 회초리로 때리며 일을 시켰지만, 향량은 더욱 공손하고 조심했다는 점(父自新有後妻罵. 常疾惡娘, 箠楚使之, 娘愈恭謹.)'이 부각되고 있다. 시집가서 남편의 횡포에도 화를 내지 않는 등 부덕을 갖춘 향량의 모습은 서사 한시에서도 다르지 않다.<sup>11)</sup> 그렇지만 이상적인 부덕을 갖춘 여성으로 묘사되는 향량의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는 그녀의 강한 자의식을 드러내며, 그가 죽음을 선택한 데에도 그러한 성품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sup>12)</sup>는 점에서 작자의 의도와는 합치되지 않는 지점들이 나타난다. 향량의 성품과 행위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죽음을 열(烈)로 환원시켜 교훈적 담론으로 몰아간 입전의 의도와는 합치되지 않는 인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광정은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편의 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의 글 속에 형상화되는 여성들은 대부분 유교 도덕을 실천한 인물로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광정은 자신이 과거를 통해 직접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신, 글쓰기 작업을 통해 교육과 교화를 이루어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층민이나 여성 인물을 다루는 글에서 나타나는, 규범적 행위를 부각시키는 서술 태도는, 하층민이나 여성들의 도덕성과 주체적 인간성을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도덕적 규범에 의해 대상화한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sup>13)</sup> 본고에서는 이광정의 이러한 규범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

11) 一善女子名薊娘 生長農家性端良 少小嬉戲常獨遊 行坐不近男兒傍 慈母早歿後 母罵 害娘箠楚恣暴狂 娘愈恭謹不見色 紡絲拾菜常滿筐 - 李光庭, '香娘謠', 第1行-第8行, 『訥隱先生文集』卷一.

12) 조혜란, 위의 논문, 67-68면 참조.

13) 조선후기에 오면 열녀전이 대부분 지방, 특히 영남의 한미한 사족 가문의 작자에 의해 지어진다는 사실은 이러한 글쓰기가 지방 사족들의 향촌사회에서의 입지 구축을 위한 방편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향촌 내에서 계층에 관계없이 절의를 요구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대

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그 양상을 통해 당대 여성의 현실과 이광정의 여성 인식 태도를 파악해보려고 한다.

### 3. 여성의 목소리 구현 양상

전통적으로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목소리를 내는 때는 삶을 다한 뒤 남성들에 의해 추모되는 경우일 뿐이었다. 여성이 그 밖의 공적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 그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이광정의 역시 이러한 전통적 여성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옛말 가운데 경계로 삼을 만한 것을 수집했는데, 세 가지를 얻어 ‘삼계(三戒)’로 삼으려 한다. 과객 가운데 옛날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세 사람의 것을 취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세상을 경계할 만한 것으로 ‘삼외(三畏)’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이지만 알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 말을 하면서도 신중하지 않음은 두려워할 만하다. 충명한 여자의 말 잘 하는 혀 역시 두려워할 만하다.<sup>14)</sup>

‘장설(長舌)’을 가진 ‘철부(哲婦)’가 환란의 근원이 된다고 노래한 『시경』의 시편은 서주(西周)의 마지막 왕 유왕(幽王)의 비 포사(褒姒)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워졌음을 풍자한 것이다.<sup>15)</sup> 이광정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

석사학위논문, 2001, 13-15면.

14) “余既於古語中，采可戒者得三物爲三戒。客有過者喜談古事，就其中得三人。雖未知實有其人與其事，而亦可以儆世者爲三畏。蓋友而不知人，可畏也。言而不能慎，可畏也。哲婦長舌，亦可畏也。” - <亡羊錄> 二十一條, 『訥隱先生文集』 卷之二十一, 謾錄.

는 세 가지 대상 가운데 하나로 이 ‘총명한 여자’의 ‘말 잘하는 혀’를 꼽았다. 첫 번째로 든 ‘알 수 없는 친구’는 신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벗을 사귀는데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 ‘신중하지 않은 말’은 말이 갖추어야 할 본질적 요건을 잃은 것을 경계했다. 마지막 ‘말 잘하는 총명한 여자’ 역시 총명한 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말 잘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교적 세계관 내에서 여성의 발언은 애초부터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명분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 사대부의 글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찾기로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인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힘겹게 새어 나오거나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가 이광정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효/열의 갈등과 죄의식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켜 자결하는 여성의 모습은 임진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7세기 이후부터는 ‘병사한 남편을 따라 죽는 여성’, ‘남편 사후 장례와 제사, 후사 문제를 처리하고 순절한 여성’의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사회 혁신의 방편으로서의 ‘열’에 대한 관념이 강화되면서 여성에게 죽음을 종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순절 열부를 낳게 되었다.<sup>15)</sup> 이러한 순절 열녀의 모습은 <김열부박씨정려명(金烈婦朴氏旌閭銘)>과 <조열부이씨묘갈명(趙烈婦李氏墓碣銘)>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15) “哲夫成城，哲婦傾城。懿厥哲婦，爲梟爲鴟。婦有長舌，惟厲之階。亂匪降自天，生自婦人。匪教匪誨，時維婦寺。” - 『詩經』, 「大雅·瞻仰」

16) 이해순, 위의 글, 11-14면 참조.

대상[열녀]의 훌륭한 덕과 착한 행실을 기리기 위해 지어지는 명(銘)의 장르적 특성상,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생동한 면모를 찾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들 여성의 갈등을 찾아보기란 더욱 힘들다. 여성의 행위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감탄하고 칭송하는 목소리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다.<sup>17)</sup>

하늘이 주신 선량하고 곧은 분이, 시집가서 또 이진 이를 배필로 삼았네.  
어찌하여 그분이 창성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다만 순절(殉節)하게 되니, 절의(節義)가 그 분과 함께 간직되었네. 정문(旌門)에 새겨 그 빛을 영원하게 하노라.<sup>18)</sup>

그런데, 문제는 이들 열녀는 모두 타고난 성품이 훌륭하고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남달랐던 박씨는 남편의 병세가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병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고 눈물 흘렸다. 이씨는 열녀이기 이전에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딸로서, 효와 열절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어려서부터 더없이 착한 성품을 지녀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집안일을 돌보아 일가친척들에게 가상하다고 칭찬받았다. (중략) 열부가 가문에 들어서서 부부가 화목하게 지냈고 시부모가 다 '그 아이는 우리를 효성을 다해 섬긴다.'라고 칭찬했다. 얼마 후 필제가 공부하다 과로하여 병이 들었는데 짐

17) 鄰近聞者, 皆爲之感歎, 士林聞于官, 轉達之朝, 上命旌其閭. -〈金烈婦朴氏旌閭銘〉, 李光庭, 『訥隱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87, 326면.

18) 天與之淑貞, 歸又配其良. 胡不俾而昌, 而罹此不祥? 惟其殉之, 義與同藏. 銘于棹楔, 以永其光. -〈金烈婦朴氏旌閭銘〉, 李光庭, 『訥隱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87, 326면.

집 위독해졌다. 열부는 밤낮으로 곁에서 약시중을 들었는데, 그 정성 덕분에 필제는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해져서 친정으로 가 뵈었는데 얼마 안 되어 필제의 병이 또 심해지자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재촉했는데, 열부가 탄식하며

“병이 조금 나은 데서 더 심해지니 어찌 할 수 없구나.”

라고 하고, 둘러대는 말로 어머니를 편안하게 위로하고는 물러나와 집안 여인들과 흐느끼며 이별했다. 반쯤 가서 시댁의 사람이 오자, 남편의 병세를 묻고는 친정의 여종을 돌려보내며 말했다.

“이번에 가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말을 삼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거라.”<sup>19)</sup>

남편의 죽음을 예감하고는 이미 따라 죽을 결심을 한 박씨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보살펴드렸던 병약한 어머니를 두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놓으면서 탄식하고 흐느끼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는 다만 “어쩔 수 없구나.”하는 체념의 탄식을 뱉어내고 부모님을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고 단속할 뿐이었다.

그 언니가 위로하여

“부모님께서 너 때문에 상심하시어 노쇠하신 얼굴이 날마다 초췌해지신다. 네 평소의 효성은 하늘에 이르도록 지극한데, 유독 늙으신 어머이는 위하지 않는 것이냐? 조금이라도 스스로 제재하고 참아라! 또 네 시댁이 번성하는데, 어찌 네 남편의 뒤를 이을 만한 어질고 효성스러운 사람 하나가 없겠

19) 幼有至性，侍母病攝家事，爲宗黨所嘉誦。(중략) 烈婦入門，瑟琴鼓矣，公姑俱稱其事我孝。既而弼濟讀書過苦，得病彌留。烈婦日夜侍湯餌，用其情，弼濟少良。而母病劇，歸省未幾，而弼濟病又進，趣婦還，烈婦歎曰：“病加於少愈，不可爲矣。”權辭寬慰母，退而與諸婦女泣訣。行半途，夫家人至，諄其病，送母家婢還曰：“此行吾不可復。然汝慎語，勿以傷父母意。”-〈金烈婦朴氏旌閭銘〉，李光庭，『訥隱集』 권11，『한국문집총간』 187, 325-326면.

느냐?”

라고 하니, 이씨가 눈물을 똑똑 흘리며 다시 말하지 않았다.<sup>20)</sup>

이씨 역시, 부모님을 생각하여 생각을 돌리라는 언니의 말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 때문에 눈물만 똑똑 흘릴 뿐이었다. 잘 들리지 않지만 여성의 목소리는 이렇듯 ‘말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나지 않는 갈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순절 열녀들은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죄의식으로 인해 결국에는 목숨을 끊게 되고, 명을 짓는 사대부는 그 죽음의 시점에서 그들의 절행이 타고난 성품과 교육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명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남편을 따라 죽어 빛나는 열행이지 자식 된 도리와 열행 사이에서 고민하는 열녀의 인간적인 모습은 아니다.

날마다 수척해지니 친정부모가 듣고서 가엾게 여기고는 가마에 태워 집에 데려왔는데, 혼절했다가 겨우 깨어난 것이 여러 번이었다. 누워서 는 이불을 뒤집어썼고 앉을 때는 꼭 구석을 보고 있었으며 흐트러진 머리와 지저분한 얼굴로 숨을 할딱거리는 것이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그 언니가 와서 보는데, 어린 아이가 옆에 있으니, 이씨가 오랫동안 유심히 바라보다가

“언니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무슨 죄를 졌을까요?”  
라고 했다<sup>21)</sup>.

20) 其兄慰之曰: “父母以汝故傷心, 衰容日悴. 汝平日誠孝天至, 獨不爲老親地? 少自裁抑乎! 且汝夫黨盛, 豈無一人賢孝可後汝所天者?” 李氏泫然不復開口. -<趙烈婦李氏墓碣銘>, 李光庭, 『訥隱集』 권12, 『한국문집총간』 187, 350면.

21) 父母聞而憐之, 身致家, 絕而僅甦者數. 臥輒蒙被, 坐必向隅, 蓬頭垢容, 奄奄若不保朝夕. 其兄診之, 稚幼在側, 李氏屬目久之曰: “兄福人耳. 我何辜于天乎?” -<趙烈婦李氏墓碣銘>, 李光庭, 『訥隱集』 권12, 『한국문집총간』 187, 350면.

순결로 열녀가 되는 이들 여성은 남편과의 사랑과 의리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병에 걸려 그 병수발을 하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면서 남편이 죽을 때까지 몇 년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남편에 대한 의리는 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 비록 자발적인 열행이라고는 하지만, 살아도 생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생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여성들의 고통을 본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생각하며 차마 따라죽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열부는 결국 남편이 죽고 후사가 없는 이 모든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리며 스스로를 죄 지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공식적 글에서는 열녀인 여성이 이러한 결단으로 치달아갈 때까지 겪었을 내면적 갈등에 대해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열녀를 기술하는 글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열부 자신보다 남편의 훌륭한 품성과 재주, 행동을 부각하고, 시택 식구의 가계와 가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열녀의 탄생이 시택을 영예롭게 만드는 측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열녀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거세당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지만 열녀에 관한 기술에서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를 주목해보면 공식적 글쓰기의 표면적 지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갈등하는 여성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 (2) 지연되는 죽음의 감내와 가부장의 목소리

남편이 일찍 죽은 여성이 따라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일은 사실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로 살아가는 일은 가장이 없는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는 경제적 책임 외에도, 주위의 시

선을 신경 쓰며 정절 모해의 여지를 없애야 하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내야 하는 의무에 다름 아니었다. 자식을 교육시키고 살림을 일구어 사회를 유지시키는 실질적 원동력이 되었던 살아남은 수많은 여성들의 모습은 질긴 삶을 감내하느라 강하고 거세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가부장의 뒤편까지 해내느라 더욱 남성화되어갔다.

<효열부이공인묘지명>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후사 없이 죽자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후사를 세워 잘 기른 이공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 남편이 죽자 따라죽으려 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이공인은 죽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삶을 거의 포기한 듯 보인다.

홀로 여러 해를 지내면서, 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웃지 않았고, 항상 해진 베로 옷을 해 입었으며, 한 번도 따뜻한 곳에 가서 침구를 편 적이 없었고, 베갯머리에는 늘 눈물 자국만 더해갔다.<sup>22)</sup>

편안한 잠자리와 좋은 옷은 물론이고 웃거나 말하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지점까지 문면에서 그녀의 목소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상징적 죽음을 감수해내는 처절한 모습과 침묵은 이공인뿐 아니라 대부분 살아남은 여성이 취하는 공통적 자세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여전히 지루하게 삶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인은 자신이 아직 살아야 하는 이유를 시부모의 봉양과 후사 세우기에서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만 행동하고 소리 낸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열녀에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

22) 孀居累年, 不與人語笑, 常衣敝布, 未嘗就溫設寢具, 枕席常積淚跡. -<孝烈婦李恭人墓誌銘>, 李光庭, 『訥隱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87, 390-391면

사대부 남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 목소리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이다.

통덕군의 사촌 형이 아들 성채(成彩)를 낳자 공인이 강보에 싸인 것을 데려다가 스스로 기르면서 말했다.

“가신 분에게 하루도 후손이 없었던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sup>23)</sup>

이공인은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나서야 목소리를 갖는다. 남편이 당부한 과업의 실천을 위해서는 홀로 남은 고통과 슬픔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었다. 남아 있는 시부모와 자식을 위해 현실을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실제 가정 경제를 도맡아 살림을 잘 꾸려나가야 했기에 여성들은 강인한 생활력을 갖출 수밖에 없었고,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남편을 대신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대대로 한양 밖 도제동(道濟洞)에 살았는데, 임진년[1592]에 난리가 일어나자 두 아들은 막 아내를 얻어서 전쟁을 피하려고 의논했다. 숙인은 안 된다고 하며

“네 부친은 비록 불행히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친가 외가 모두 대대로 은혜와 봉록을 받았으니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다.”

라고 하고, 진선에게 말했다.

“너는 임금님의 행차를 따르거라! 나는 네 동생들과 같이 두 머느리를 데리고 깊숙하고 후미진 곳으로 옮겨가 피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임금님의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략)

경선은 군위 현감, 계선은 별좌, 효선은 예빈시 참봉으로, 다섯 아들이 다 학문과 덕행을 갖추었다. 기선은 권무(勸武)로 무과(武科)에 급제 했는데,

23) 通德君從父兄生子成彩，恭人取之襁褓中，自鞠之曰：“不忍逝者一日無後也。” - <孝烈婦李恭人墓誌銘>, 李光庭, 『訥隱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87, 390-391면

숙인이 좋아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우리 친가 외가가 대대로 문학으로 이름이 났다. 네 형이 이미 호종하여 무과에 급제했는데, 네가 또 무예로 입신하면 우리 자손들은 끝내 투구를 쓴 집안이 되고 말 것이다.”

기선은 고개를 숙이고 명을 듣고는 감히 다시 벼슬을 구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끝내 현달하지 못했다.<sup>24)</sup>

<숙인박씨유사>에는 전쟁이 일어나 막 혼인한 아들들이 피신하려고 하자 국가에 대한 도의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조하며 큰 아들을 위험한 길로 내보내는 어머니가 나타난다. 그녀는 막내아들 김기선이 무과에 급제했을 때에도 가문의 정통성과 지위를 위해 아들이 무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다.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가문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해 문과급제를 종용하는 숙인 박씨의 목소리는 가문과 국가를 영속시키기 위한 가부장의 그것에 다름 아니다.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규범적으로는 더욱 강화된 것이어서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기선의 경우는 그 아버지의 요구 때문에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끝내 현달하지 못하게 된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남은 생은 자신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단호하고 엄격하게 발언해야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가부장의 목소리로 남편이 못한

24) 世居京城外道濟洞, 壬辰之亂, 二子甫授室, 議避兵. 淑人不可曰: “汝父雖不幸早世, 內外俱世受恩祿, 不同平人.” 謂振先: “汝其扈從! 吾與汝諸弟持兩婦, 轉避深僻, 不慮, 汝也須盡心王事.” (중략) 慶先軍威縣監, 繼先別坐, 孝先禮賓寺參奉, 起先宣傳官, 五子俱有文行. 起先因勸武登武科, 淑人不樂曰: “吾內外世以文學顯, 汝兒既扈從武舉, 汝又以武發身, 吾子孫其終爲兜鍪家矣.” 起先俯首聽命, 不敢復求仕, 故終不達. -<淑人朴氏遺事>, 李光庭, 『訥隱集』 권20, 『한국문집총간』 187, 513-514면.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여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고 고달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살아남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목소리를 견지해야만 했다.

따라 죽지 못한 여성에게 남은 삶은 죽음의 유보에 다름 아니었으므로 언젠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일부러 이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임자년[1732]에 성채가 천연두를 앓다가 다 나았다. 그러나 공인이 연이어 병에 옮았는데, 동생들에게 약을 올리지 말라고 명하면서 말했다.

“성채가 이미 다 자자 이 병을 잘 겠었으니, 내 바람은 다 채워졌다. 어찌 해서 또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면서 돌아가신 분을 따르지 않겠느냐?”

3월 3일에 공인이 죽으니, 나이 55세였다.<sup>25)</sup>

이공인은 후사로 세운 아들 성채에게서 천연두를 옮겼지만 성채가 살아남은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약을 거부한다. 유보된 죽음의 시점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음에도 여전히 순절 열녀와는 비교될 수밖에 없기에, 이들의 절행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사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공인의 경우, 살아남아 수행해야 했던 임무들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이고 때로 과장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인은 항상 봉양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웃의 여인이 그 지극한 정성을 엿보고 색다른 음식이 있으면 다투어 와서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공인의 뜻에 맞게 해주었다. 시어머니가 한 번은

25) 壬子, 成彩患痘既良. 而恭人繼染, 命諸弟勿進藥曰: “成彩既成人, 順經斯疾. 吾望塞矣. 奈何又遲留人世, 不從亡人乎?” 三月三日, 恭人卒, 年五十五. -〈孝烈婦李恭人墓誌銘〉, 李光庭, 『訥隱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87, 390-391면.

않으면서 썩 요리를 드시고 싶어 하셨다. 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서 공인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날아가던 썩 한 마리가 마당에 떨어져서는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자 잡아서 시어머니께 드렸다. (중략) 공인은 살아계실 적에는 그 봉양을 다했으며, 돌아가시자 그 슬픔을 다했다. 생전에 시부모님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몸을 봉양하면서 (마음에)맞지 않은 적이 없었고, 우리 뜻을 받들면서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라고 했고, 돌아가시자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부인이 상을 주관하는 것이 예에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하고 장례지내고 제사 차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라고 했다. (중략) 3월 3일에 공인이 죽으니, 나이 55세였다. 인근 마을에서는 노소 할 것 없이 곡을 하여 마치 친척 같았다. 장인(匠人)은 품삯을 사양하며 말했다.

“제가 톱과 끌을 쥐고 이 부인의 마지막 일을 맡은 것은 영광입니다. 무슨 품삯이 있겠습니까?”

장사지낼 때가 되자 일꾼은 새참을 기다리지도 않고 힘써 일했다.<sup>26)</sup>

공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시부모에 의해 드러나며, 이웃 여인, 마을 사람들, 심지어는 장인과 일꾼들에 의해서도 직접 발화된다. 많은 사람들의 애도는 공인의 삶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의 감화를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작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26) 恭人常憂奉養之不如意，隣女憫其至誠，苟遇異味，爭來饋，或丐諸人以稱恭人之意。姑嘗病思雉膳，市不得。恭人憂之，有蜚雉墮庭，迫之不去，取供姑。(중략) 恭人生則致其養，沒則致其哀。生而舅姑曰：“吾婦養吾體無不適，承吾意無不順。”沒而見聞者皆曰：“是婦人所以持喪，無不中禮，所以衣斂葬祭，無不悅人心。”(중략) 三月三日，恭人卒，年五十五。隣里無老幼哭，如親戚。匠人辭直曰：“臣執鉅鑿，役茲夫人終事榮矣。何直之有？”及葬，役夫不待餼而勸。-〈孝烈婦李恭人墓誌銘〉，李光庭，『訥隱集』 권14, 『한국문집총간』 187, 390-391면.

하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정이 공인을 효열부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알기에 작자는 이러한 평가를 비중 있게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꿩 일화는 시부모에 대한 공인의 효성이 ‘감옹’의 신화적 차원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성심을 다해 시부모를 봉양하려는 공인의 노력은 늘 이웃에까지 좋은 음식을 구하는 모습으로 이미 드러났는데, 이러한 노력은 자연까지 감동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 일화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병든 시어머니를 위해 꼭 구해야만 하는 꿩은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꿩이 스스로 마당으로 떨어져 제 몸을 희생함으로써 공인의 효성이 초월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절의를 통해 여성을 이야기하려는 작자의 태도가 강화될수록 여성 자신의 목소리는 문면에서 더욱 찾기 힘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인이 살던 산은 우리 집 동쪽 마을 언저리에 있다. 부인의 선친께서 만년에 집을 옮기시어 나와 이웃이 되셨는데, 부인은 그로 인해 산 아래로 왔다 갔다 하셨다. 나도 그때 부인을 뵈었는데, 부인은 늘 흐느끼면서 말했다.

“미망인이 젊은 나이에 과부로 살면서 따라 죽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시택이 몰락하고 자식은 어리석어 벼슬도 없으니 진실로 깊이 생각지 않고서 작은 의리를 행했다. 홍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리하여 감정을 억누르고 부끄러움을 참고 늙어가게 되었으니 심한 것이 절긴 목숨이다.”<sup>27)</sup>

27) 夫人之山，在光庭家東里許。夫人先君晚移家，與光庭隣，夫人仍往來山下。光庭亦時省夫人，夫人常嗚咽曰：“未亡人青年孀居，非不知殉逝者之爲安，而夫家禍敗，孤蒙罔階，苟不念而行小諒。洪氏絕世已久矣。故抑情忍話以至於老，甚矣命之頑也。”-〈中表從叔母權氏遺事〉，李光庭，『訥隱集』 권20, 『한국문집총간』 187, 514-515면.

간고함 속에서도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나머지 역할을 묵묵히 완전하게 수행했던 이들은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며 집안을 일으켰지만 ‘작은 의리’를 택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의 발화는 흐느낌 속에 묻히고, 자책으로 끝난다. 이광정의 5촌 숙모 권씨는 ‘늘 흐느끼며’ ‘따라죽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참고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흐느끼면서 그나마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는 이러한 발언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집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자식을 키워 가문을 일으킨 과업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권씨는 시집간 지 4-5년 만에 시부모와 남편, 시동생이 연달아 죽자, 혼자 힘으로 네 사람의 장사를 치러내고 시누이 혼사를 위해 힘겹게 혼수를 마련했으며, 자식 교육을 철저하게 했다. 가장이 없어 지키지 못한 재산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집안 어른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신했다. 간고함을 이기고 살아 지켜낸 업적은 남편의 뜻을 대신 이루어낸 훌륭한 것이므로 공식적 언술을 통해서 찬양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여성의 목소리는 가부장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래 은폐되어 잊혀진 것처럼 보인다.

### (3)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목소리

남편을 따라죽지 못한 ‘생열녀(生烈女)’의 양상은 ‘개인적 차원의 여성 순절의식을 가족 차원으로 확대 생산’하여 며느리·어머니로서의 의무를 강화했다는 한다는 혐의를 받는다.<sup>28)</sup> 그렇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 분별력과 판단력, 강인한 의지로 한 가문을 일으켰던 여성들에게서는 순절열녀와는 다른 삶에의 적극성을 엿보게 된다. 여성의 삶에서 윤리적 측면을

---

28) 이혜순, 위의 글, 2002.

강조하는 이광정은 과부 생활의 간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기술한다.<sup>29)</sup> 그런데, 가난한 살림에 제수를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등<sup>30)</sup> 일상에서 살아 생동하는 인간의 면면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념적 차원의 평면적 인간이 아닌 살아 숨쉬는 따뜻한 인간들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인물의 구체적 형상화는 장모 이씨는 제사하는 글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내가 외람되게 집안에 들어간 것이 실로 나이 어릴 때여서 떠돌아다니기 만 했지 잘 하는 것이 없었는데도 깊이 마음으로 아끼셔서, 평고기포 같은 맛있는 음식을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꺼내주셨다. 마시고 먹는 것이 많은가 적은가로 기뻐하시거나 걱정하셨고, 자고 가면 기뻐하셨고 그 가난함을 생각지 않으시고 콩이 반이나 든 밥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지어주셨다.<sup>31)</sup>

<제외고전의이씨문(祭外姑全義李氏文)>에서는 사위 이광정을 아끼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따로 챙겨두었다 꺼내주고 정성을 다해 대접해주던 장모 전의 이씨의 자상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광정은 이 글에서, 자신에게 살갑게 대해주던 장모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는 한편, 아내 광

29) 孀居累年，不與人語笑，常衣敝布，未嘗就溫設寢具，枕席常積淚跡。而在舅姑側，不作戚戚容，奉養益謹，資送小姑以禮。-<孝烈婦李恭人墓誌銘>，李光庭，『訥隱集』 권14，『한국문집총간』 187，390-391면.

30) 시택의 제사가 봄에 많이 있었는데, 미리 목화를 사다 손수 베를 짜 다시 팔아서 이문을 남겨 제물을 차렸고, 제사 때에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서 정결하게 제수를 차려 올리니, 범식에 꼭 맞았다. 夫家祀多在春月，豫買木綿，手自紡績，轉賣取贏，以致鮮腆，當祭，達夜不寐，圭爲哀薦，必中法式。-<孝烈婦李恭人墓誌銘>，李光庭，『訥隱集』 권14，『한국문집총간』 187，390-391면.

31) 余辱于門，實在少齡。遊浪無能，乃篤心憐，餌脛撰旨，深儲昇嚙。飲滄多少，以爲欣懼，宿留則喜，不顧其糞，半菽之餽，亦至情然。-<祭外姑全義李氏文> 『訥隱集』 권10，『한국문집총간』 187，311-312면.

산 김씨가 일찍 죽은 후 소원해져 장모가 병석에 있을 때 자주 찾지 못하고 장례 역시 직접 치르지 못한 데 대한 회한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장모 이씨의 행적보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장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광정은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후, 장모를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모에 대한 이러한 친밀감은 문면에서 감정의 토로 등으로 드러난다.

이씨는 외동딸로 태어나 사랑받으면서 자랐고 훌륭한 남편을 골라 혼인했다. 그러나 남편은 현달하지 못했고, 그나마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광정은 남편을 따라 순절할 만큼 현실이 간단치 않음을 부인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다.

부인이 홀로 되자 남은 아이들 방에 가득히 울면서 붙들고 당기는데 누가 먹여 길렀는가? 독한 고통을 참고 저녁까지 고달프게 일하여 그 집안을 보존하니, 마침내 고통스런 재앙을 건너서 큰딸과 성장한 아들을 시집보내고 장가들었다.<sup>32)</sup>

장인은 ‘장자(長子)’라는 명당은 있었지만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또한 아직 어린 아이들이 방에 가득 앙양 울어대며 어미를 붙드는 상황에서 다른 열녀들처럼 순절한다는 생각을 내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당장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 종일 고달프게 일하며 살림을 일구어내는 것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녀는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냈다는 점에서 ‘정숙(貞淑)하다’고 평가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 글은 고통을 감내하고 이루어낸 ‘성과’보다 그러한 고통을

32) 夫人之寡，遺孤滿室，啼嗚扶提，孰餽以育？忍其荼毒，辛勤達夕，克持厥家，終濟艱厄，長女成子，于歸于迎。—〈祭外姑全義李氏文〉『訥隱集』권10, 「한국문집총간」 187, 311-312면.

‘겪어낸 과정’,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겪어낸 주체’에 대해 주목한다는 점에서, 절의적 행위를 칭송하고 평가해내는 다른 글과는 성격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서술의 태도는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감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광정은 비록 본인의 입장에서이기는 하지만 대상의 실상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어, 이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내가 죽어서 갔을 때에도 위로헤드릴 말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지!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건 운명에 매였는데, 아이가 자네와  
있다가 죽은 것이 흠머미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네.”

라 하시고는, 슬픔을 참으며 술잔을 잡으시고 도리어 나를 위로하셨다. 부인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 오직 자식뿐이었는데, 자식을 잃고서도 이치를 따져 너그럽게 말씀하시니, 장부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여인의 행실이라 비록 드러나지 않으나 그 일단을 추측해볼 수 있겠다.<sup>33)</sup>

위의 글에서는 일찍 죽은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장모에 대해, 제대로 돌보아드리지 못한 자신의 회한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가난하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장모의 모습에서 오랜 동안 자신의 감정을 동여매온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딸이 죽었음에도 사위에게 모든 것이 운수소관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슬픔보다 아내를 잃은 사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위로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일찍 혼자되어 아이들을 돌보며 고달프게 생활해왔던 자신

33) 及喪婦還, 無辭以寬, 曰: “無以爲! 早晚在命, 兒死君手, 猶勝蓼莪.” 抑哀執觴, 反以余慰. 婦人之性, 所愛惟子, 喪而理遺, 丈夫亦難. 內行雖隱, 可測一端. 『訥隱集』권10, 『한국문집총간』187, 311-312면.

의 삶을 돌아본 끝에 나온 깨달음의 말로 들린다. ‘남편보다 먼저 죽는 것’이 여자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혼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는 이 말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한다.

사랑하는 딸의 이른 죽음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하여 나올 수 있을까? 결국 장모의 이러한 발언은 죽는 것이 차라리 나왔을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로 읽을 수 있겠다. 장모의 이 말은 표면적으로 사위를 위로하는 언사가 되지만, 들리지 않거나 숨죽인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읽어낸다는 차원에서 보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홀로 된 여성의 삶에 대한 뼈아픈 토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러한 언술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항변하는 목소리로 읽히기도 한다.

장모 이씨는 절의적 인물로 표상화된 대상이 아니었고, 작자에게 감정적으로 가까운 인물이었으므로 오히려 그 목소리가 생생한 채로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여성인물들은 관념으로 포장될수록 목소리를 잃거나 목소리를 바꾸고서 소리낼 수 있었던 것은 작자가 그만큼 공적인 자세로 여성을 대상화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 4. 여성 형상화의 시각과 여성의 목소리

이광정은 정절을 지키는 하층 여성에 관해서도 주목한다. <효열부이공 인묘지명>에서는 “어찌 귀천에 따라 그 마음이 다르겠습니까?”라고 하며 주인인 이공인을 따라 절의를 지킨 여종의 모습이 보인다. 열절의 관념이 하층여성의 삶까지 지배했던 양상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에는 양반·양인 여성들과 달리 주인을 위해 충성한 인물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효나 열뿐 아니라 충의 의리를 실현한 인물로 간주된다.

<이승전(二勝傳)>에서는 ‘승진(勝眞)’과 ‘승매(勝妹)’라는 두 하층 여성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두 사람의 경우, 태어나면서의 품성 같은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여종’과 ‘종의 아내’라는 신분이지만, 그들 행위의 기준은 ‘사족 여성’이나 ‘사대부’가 된다. ‘집안을 다스리고 음식을 하고 배를 짜는 부녀자의 일들을 사족의 자제와 다름없이<sup>34)</sup> 하고, 장례의 절차는 ‘사대부의 예처럼<sup>35)</sup> 엄중히 치렀다는 언급은 하층 여성에까지 부덕(婦德)의 잣대가 드리우고 있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양반 부녀자들보다 더 순수하게 윤리적 강령을 실천한 인물로 구현된다.

그가 시집가지 않은 것은 췌이고 어른을 섬긴 것은孝이며, 주인을 섬기는 것을 본분으로 여긴 것은 忠이니, 이는 三綱이 한 몸에 다 갖추어진 것이다.

나는 이웃에 살면서 그의 행실을 잘 알고 있었다. 관찰사에게 알리고자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가 미천한 신분이어서 행실이 사라지게 될까 애석히 여겨 이에 전을 쓴다.<sup>36)</sup>

“옛사람의 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도 대부분 글자를 알지 못한다. 공광(孔光)은 ‘進退’라는 글자를 몰랐고, 장우(張禹)는 ‘剛正’을 몰랐으며, 허경중(許敬宗)·유종원(柳宗元)은 ‘忠孝節義’라는 글자를 몰랐다.’ 이것으로 논하면, 이 부인은 비록 독서를 하지 않아도 이는 글자가

34) 凡治家飲食紡紉, 婦女所當爲, 無異士族子 - <二勝傳>, 訥隱先生文集卷之二十, 二勝傳 「한국문집총간」187, 526면

35) 凡所褻斂俱華好, 所以守喪奉祭者, 無不如士夫禮 - <二勝傳>, 訥隱先生文集卷之二十, 二勝傳 「한국문집총간」187, 526면

36) 蓋其守身則烈, 而事舅則孝, 以分則其爲主甚忠, 是三綱具于一身也, 余鄰居, 熟知其行, 欲聞於廉使而不果, 惜其出於賤微而行泯滅, 於是爲之傳. - <二勝傳>, 訥隱先生文集卷之二十, 二勝傳 「한국문집총간」187, 526면

많습니다.”<sup>37)</sup>

이광정은 사대부 여성들보다 더 온전히 본원적 윤리를 체득하고 실천했던 하층 여성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충·효·열의 완전한 현현체라고 하고, 엄일태의 말을 빌어 ‘배우지 않았지만 ‘진퇴(進退)’, ‘강정(剛正)’, ‘충효절의(忠孝節義)’라는 삶의 자세와 신념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 칭송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념적 언어를 말하고, 그것을 여성의 몸에 각인시키는 것은 사대부 남성들이다. 하층 여성들은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

승매는 어려서부터 자색이 있었고, 그 행동은 사람들이 어질다 여겨 그의 뜻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승매는 죽음으로써 맹세하고 항상 날선 칼로 언제나 스스로를 지킨 것이 15,6년이어서, 범하는 자가 없었다. … (중략)… 평소 행동거지에 떳떳함이 있었고 과부가 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과 말한 적도 없었고 눈을 들어 남자를 쳐다본 적도 없었다. 그 남편 형제의 자식에 의지해 늙어갔다. 이웃사람들이 그 행적을 관에 알리려 했으나, 이것 이 자기의 악행을 퍼뜨리기라도 하는 양 여겨 아주 싫어했다. 사람들이 간혹 말하다 그 일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다.

嚴一泰 생이 그 행적을 듣고 기이하게 여겨 가서 보고자 했으나 승매가 이미 늙었어도 장부와 마주하고 말하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만두었다.<sup>38)</sup>

37) 先民有言，人讀書，多不識字，孔光不識進退字，張禹不識剛正字，許敬宗，柳宗元不識忠孝節義字，以此論之，若此婦者，雖不讀書，而所識字多矣。 - <二勝傳>，訥隱先生文集卷之二十，二勝傳 「한국문집총간」187, 526면

38) 妹少有姿，其行人以爲賢，無不欲奪其志者，妹以死自誓，常礪刃坐臥自衛十五六年，人無犯之者。 …(중략)… 平居動止有常，既嫠居，未嘗對人語，未嘗舉目視男子，依其夫兄弟之子老焉，隣人欲以其行聞諸官，大惡之以爲是播己之惡，人或語及其平生，則垂首不答，嚴生一泰聞其行，奇之欲往見，聞妹已老，尙不對丈夫言，乃止。

승매는 어릴 때부터 외모도 예뻐고 착해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여성이었다. 남편이 일찍 죽자 의리를 지키며 살기로 하지만 열을 지키는 것이 하층민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승매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늙거나 앓거나 어느 때고 칼을 품고 살았고, 남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않기 위해 늙을 때까지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열은 지켜져야 하는 본성적인 아름다운 윤리이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제약들과 마주해야 했다. 열을 장려하고 포상하는 사회였지만 개인의 과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불온하고 비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층여성의 경우 윤리적 절행에 의해서 공적 기록으로 남게 되지만, 이렇게 공적 의도가 드러날수록 여성인물의 목소리는 점점 안으로 침잠해 들어간다.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거부한 승매는 양인 여성처럼 흐느끼지도 크고 강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승매를 입전한 작자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 역시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이광정이 글에서 다룬 여성들은 대부분 절의를 이룬 인물들이었다. 그는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여성을 그려냈으므로 그의 글에서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이 평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작품 속에 구현된 대상의 모습 속에서, 발화하지 않는 여성의 말까지 살펴보면 글의 의도와는 다른 여성의 목소리와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다. 열녀로 칭송되는 여성들일 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내면적 갈등은 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발화와 흐느낌,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공적인 규제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또는 들리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에서,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그리고 작자가 표방했던 여성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그 윤리적 감화의 대상이라

- <二勝傳>, 訥隱先生文集卷之二十, 二勝傳 「한국문집총간」187, 526면

는 것이 실상과 배치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광정은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지 않던 여성의 목소리를 읽어내게 해주었다. 이는 비록 그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일 수 있지만, 그의 작가적 감수성과 표현력이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점들은 표현 방식의 구체적 면면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광정의 글에는 대상 인물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독특한 문체나 서사 구조, 입체적 인물 유형이 사용된다. 이러한 이광정의 문체와 표현 방식 등은 이후 문학사에서 나타나는 허구적 서사 양식과 연관하여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李光庭, 『訥隱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187, 民族文化推進會 編, 1997.

김 영, 「늘은 이광정 문학 연구 : 그의 산문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늘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의 망양록(亡羊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84.

김혈조, 「박효랑(朴孝娘) 사건과 그 문학적 연변」, 『인문연구』 10,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1989.

———, 「한시를 통해 본 이조여성의 형상 - 늘은(訥隱) 이광정의 서사적 한시를 통하여 -」, 『민족문화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박옥빈, 「향랑고사의 문학적 연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 『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30-31면

———,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240면.

신태관, 「늘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의 망양록(亡羊錄) 연구」,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회, 1987.

이은영, 「조선조 초기 제문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이혜순, 「열녀전의 入傳意識과 그 사상적 의의」,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 \_\_\_\_\_, 「조선조 열녀전의 전개와 유형」,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 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커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집, 2001.
- 조혜란, 「〈三韓拾遺〉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과 '제망녀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K C I

ABSTRACT

A Study on Women Configurations in the Works of Lee, Kwang-Jung

Kang, Sung-Sook

Most of Women in the works by Lee, Kwangjung are the characters adhere to their principle. It seems that he has a unrelieved recognition of the woman by reason that he described the woman as virtuous one determinedly. But It could be find that there are the diverse voices and thoughts in his works of the woman as long as read the women's words carefully. Although the women's words appear in the sobs or don't appear on the surface of his works, there are (1)the voice of conflict with the filial piety[孝] and the virtue of woman[烈], (2)the voice of patriarch (3)the paradoxical woman's voice in it. These diverse voices are different from his own intention, but his sensibility and expression of the writer made it possible that women make a voice.

**Key Words** Lee, Kwangjung(李光庭), Women configurations, virtuous woman, woman's voice

논문투고일 : 2006. 5. 15

심사완료일 : 2006. 5. 29

게재확정일 : 2006. 6. 12